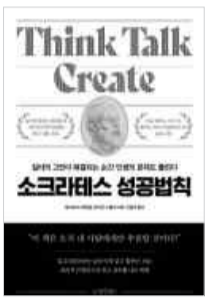


# 끊임없이 생각하고 대화하고 창조하라

## 소크라테스 성공법칙

데이비드 브렌델 외 지음, 신용우 옮김

현대인들은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산다. 개인적인 고민부터 학교, 직장 등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 내에서의 고민까지 다양하다. 특히 직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을 하기도 한다. 요즘처럼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그 스트레스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생각하고 대화하고 창조하라'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일터의 고민을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데이비드의 '독배를 드는 소크라테스'.

동물학 교수인 윌리엄 M. 뷰어는 일단 9개의 닭장에 여러 마리의 암탉을 넣고 가장 많은 알을 낳는 암탉을 선별했다. 다시 이들을 하나의 번식장에 모았고 알을 낳도록 했다. 그 결과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다. 알을 많이 낳는 암탉을 선별하는 방식을 고수하자 몇 세대 후 공격적인 품종이 생겨났다. 깃털이 나지 않을 만큼 서로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닭들이 죽었다. 당연히 달걀 생산량은 곤두박질쳤다.

이 사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극히 개별적인 활동도 사회 환경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할quito 쪼는 상황에서 결과만 측정하는 닭장은 목표 달성의 한계에 직면한다.

암탉의 경우를 일터로 전환하면 답은 간단해진다. 저자들은 '할quito 쪼는 태도'를 대체할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비인간적인 현상을 해체하려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정의해주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

고, 창조하는 능력'이다. 저자들은 소크라테스 대화를 매개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생각, 대화, 창조 공식은 직업 및 조직 환경을 더 즐겁고 영감이 넘치며 문제를 혁신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소크라테스 문제해결법은 능동적 탐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들은 "능동적 탐구는 개인이 어려움이 나 기회를 맞이했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방법, 개방형 질문을 통해 다수를 대화로 끌어들이는 방법, 전략을 함께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강조한다.

물론 능동적 탐구를 비롯해 생각, 대화, 창조의 과정을 연마하는 과정은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배울 때 들이는 시간과 노력은 삶의 질과 인간의 존엄성 향상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수익성으로 크게 보답받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동양북스·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노동자 없는 노동=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안전인식까지 너무도 편리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책은 편리함의 껍데기를 들춘다. 인공지능 그 이면에는 소멸 직전까지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케냐 다다브의 막사 안에서 일하는 여성은 여러 대의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집', '가게', '자동차' 같은 라벨을 지정하고 짧은 녹취록을 만들며 알고리즘에게 각각각색의 동물 사진을 식별시킨다. 이는 작업 시간이 아닌 '건수'로 임금이 측정되기에 불안정하고 고될 수 밖에 없다. <롤리코스터·1만6000원>



▲역사학 너머의 역사=저자는 역사학은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든, 어디로 가는가'에 답하기 위한 학문이며 역사학과 학을 지렛대 삼아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역사학의 패러다임을 '빅 히스토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138억년을 포괄하는 '모든 것의 역사'로 빅 히스토리는 우리의 기원과 정체성에 대해 가장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문학과 지성사·1만7000원>

▲정약용 코드=다산 정약용의 생애를 현대적 시각으로 쉽게 풀어 쓴 책. 저자는 정약용은 200여년 전 갓 쓴 고리타분한 선비가 아닌 과학과 예술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르네상스형 천재이자 현대인이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지식인이었다고

말한다. 정약용을 위해 아들에게 김치가 먹고 싶으면 상추를 길러 먹으라고 했던 일화부터 수학자이자 음악가였던 면모까지. <새움·1만6500원>

▲프루스트 그래픽=간간 프루스트의 기념비적인 작품은 다양한 언어와 매체로 다뤄져 왔다. 사후 100주기를 맞은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온전히 담긴 '프루스트 백과사전'으로 총칭되는 책이 발간됐다. 100개가 넘는 인포그래픽으로 마르셀 프루스트와 13권에 달하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모든 것을 한권에서 만나볼 수 있다. <민음사·2만6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꽃샘추위=문제집을 다 풀지 않았는데 시험에서 단 하나만 틀린 친구 세은이, 피아노학원 진도까지 빠른 친구 세은이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주인공 민주. 시소를 같이 타던 친구 세은이와 민주는 세은이가 서울로 전학간 뒤에서야 시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타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된다. 여자 아이들의 말하하면서도 여린 우정 이야기. <산하·1만3000원>

돌리는데 물건들이, 간판들이, 고양이들이 날아간다. 서영이는 혼자서 창문을 닫으려다가 함께 날아가버리고 말고 엄마아빠는 하나가 돼 서영이를 붙잡으려 뛰쳐나간다. <한울림어린이·1만5000원>

▲바람에 날아갔어=엄마는 잔뜩 인상 쓴 채 청소하고 아빠는 엄마에게 괜한 꾸민을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와 아빠는 싸우기 시작한다. 냉랭해진 집안 분위기, 속상해진 서영이는 창 밖으로 고개를

▲여섯 살 친구=엄마가 살던 동네로 이사하게 되면서 친구들과 헤어져 속상한 6살 연이, 연이는 엄마가 떡을 돌리는 사이 이웃집 할머니와 놀기로 한다. 할머니는 함께 놀이터에 가자고 얘기한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할머니는 웬 6살 어린이가 돼 있다. 동네 친구가 생겨서 기쁜 좋은 연이 할머니와 오래도록 놀이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국민서관·1만5000원>

# 작품보는 안목부터 키워라...아는만큼 보이는 미술투자 가이드

## 그림값의 비밀

양정무 지음

후기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 '수련'이 지난해 5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7040만달러(한화 805억원)에 낙찰됐다. 예상가(4000만 달러)의 2배 가까운 금액이었다.



하지만 19세기 당시 모네의 '인상, 해돋이' 등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에 대해 파리 미술계는 평가절하하고 조롱했다. 그림에도 프랑스 혁명후 상류층 귀족 대신 새롭게 부상한 의사, 기술자, 요리사 등 '보통 사람들'이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에 매력을 느꼈다.

화상(畫商) 폴 뒤랑뤼엘이 인상주의 화가들의 후원자 역할을 했다. 그는 인상파 화가들과 교류하며 사재를 털어 당시 인기가 없던 이들의 작품을 수백·수천 점씩 사들였다. 20여년이 지나서야 그의 장기 투자가 빛

을 봤다. 그는 "내가 만약 60대에 죽었다면 엄청난 많은 인상주의 그림에 둘러싸여서 굶어죽었을 것이다"는 말을 남겼다.

그림은 '화가의 손에서 한번, 그리고 컬렉터의 품안에서 또 한번', 두 번 태어난다고 한다. 미술사학자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펴낸 미술에세이 '그림값의 비밀'은 화가와 컬렉터가 미술시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이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저자는 '미술이라는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돈에 의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과거와 현재, 한국과 서구를 넘나들며 펼쳐 보여준다.

저자는 '미술시장의 여명기'라 할 수 있는 중세 이탈리아로 시선을 돌린다. 1350년께 흑사병이 창궐하자 종교적 구원을 갈망하는 많은 이들이 그림을 사서 교회에 기증하고자 했다. 미술시장에 수요가 몰리는데 반해 전염병 때문에 그림을 그릴 화가들이 부족해 자연 그림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14세기 후반에 저렴한 미술품이 활발하게 유통되며 미술품 가격도 하향 안정화됐다. 흑사병이라는 팬데믹 속에서 미술품의 대중화 시대

가 열렸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저자는 시대별 대표적인 화가들의 작품장작 이야기와 함께 아트딜러(그림 상인), 컬렉터를 통해 미술시장의 전개과정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술의 위상을 보여준다.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렘브란트, 빈센트 반 고흐 등 '발발의 지겨움'에 시달리면서도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보여준 화가들의 이야기는 저자가 가장 애착을 갖는 부분이다. 뒷부분에는 '한국미술시장에서는 왜 작품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나요?' 등 10개 궁금증에 대한 Q&A를 붙였다.

미국 최고의 갑부이자 자신의 미술 컬렉션을 공개한 장 폴 게티는 "미술 수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며,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최고의 보람"이라고 했다. 디지털 아트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온라인에서도 미술품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에 독자들은 중세부터 현재에 이르는 미술투자의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미술품 컬렉션에 대한 안목을 높일 수 있을 듯하다. <창비·2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든든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